



수석전문위원 : 지방기술서기관 이영민 (☎ 5170)
담당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전성도
(☎ 5365)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 과 연계]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11. 26.(금), 14:00
- 장 소 : 금산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 주 최 : 충청남도의회(신청 : 김복만 의원)
- 대 상 : 100명 미만(도민,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내 용 :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금산 인삼약초의 가격하락과 소비 부진, 약초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절체절명에 처한 인삼약초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과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금산 약초시장과 인삼약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한 의정토론회 결과임

I 총 평

-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지역 농민·상인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찾기 위한 자리였음
 -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대책과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각 토론자마다 생산·가공·소비 및 유통·제도개선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 ‘인삼약초산업의 위기의식’ 속에 발제 및 토론자의 발표와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종료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게 마치면서 ‘소비자 수요 반영, 안전성 강화 및 홍보 등’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음
- ☞ **의정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검토를 통해 도정에 반영하여,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함**

Ⅱ 주요 토론 내용

1 주제 발표 (1인)

○ 김영수 원장(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

금산 약초시장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생산 등 5개 부문)

- 생산부문에서는 생산이 증가하면, 인삼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5년 주기로 나타나고 있음
- 가공부문에서는 영세업체 중심의 가공으로 품질 및 안전성이 취약, 품목별로는 음료가 전체 업체의 84%로 품목 편중이 심함
- 소비부문에서는 소비량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소비형태는 홍삼 가공제품 중심으로 캡슐 등 복용 편의상품을 선호함
- 유통부문에서는 미검사 인삼의 유통, 전통시장형 거래로 가격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 초래 등 부정적 측면이 존재함
- 수출부문에서는 수출 증가 폭이 미미하고 금산의 점유율은 14% 수준으로 다변화와 맞춤형 상품개발이 필요함
- 제도개선부문에서는 「약사법」 개정 건의 노력 등 정부정책 대응과 특화사업 발굴 등 체질 개선 필요함

○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 목표는 초고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인삼약초의 안전생산, 안전성과 다양성을 고루 갖춘 시장 선도형 제품 가공, 유통시장 신뢰확보와 수출 등 유통채널 확대하는 것임
- 추진방안으로는 유관기관·전문가·당사자가 참여하는 삼업혁신 위원회 구성, 생산·가공·유통 등 분야별 주체가 주도하는 논의구조 운영, 분야별 과제도출 및 책임 추진체계 구축 필요
- 특히, 삼업(蔘業)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협의회와 4개의 추진단(생산·가공·유통·제도개선)을 통해 주·월·분기 단위로 추진상황과 추진과제를 점검

② 지 정 토 론 (6인)

① 문정우 군수(금산군) : 금산 인삼약초산업 기본 틀을 바꾸어야

○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현실태

- 소비 감소, 가격하락, 재고량 증가 등 인삼산업 전반에 큰 어려움
- 코로나19 영향과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도 있음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경쟁력 확보

- 인삼약초산업 표준화 지원센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다양한 계층 공약을 위한 제품별·공정별 표준화와 지원시스템 강화

○ 인삼시장의 전근대적인 거래방식 개선 - 경매제 도입

- 후진적 거래방식 개선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신뢰확보와 상인 인식 개선 등 경매제 도입(장기 과제)

○ 수요와 공급간의 수급 균형 제도 마련 - 경작신고 의무화

- 생산측면에서 구조조정 필요, 생산량 예측 및 조절로 인삼시장 수급 안정화 필요 ⇨ 「인삼산업법」상 경작신고 의무화

☞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행정지원, 종사자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 필요

② 정낙춘 국장(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금산 인삼 유통 활성화

○ 금산인삼 위기 요인

- 집중호우, 급격한 기온 변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이 필요하고, 4~5년근 재배로 6년근 중심의 소비시장 경쟁력에 취약함
- 소비감소, 재고량 증가 우려로 계약재배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시장중심 대면판매에 의존하여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에 취약함
- 안전생산은 공감하나, 채굴전 검사 등 안전성 검사 미온적

○ 금산인삼 위기 대응 방안

- 소비트렌트에 맞는 재배·소비자 수요에 맞춘 6년근 재배 확대
- 현재 도·소매시장은 안전성 검사와 관계없이 전국 인삼 반입·판매함(실명표기 및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필요)
- ‘공익기능 도매센터’ 설립으로 수삼시장 이전 등 신규 플랫폼 구축
- 금산 인삼시장 유통 총괄 전담조직 육성주체를 육성하여 대형 마트 공급, 신시장 개척 등 유통채널 다양화 추진

☞ 인삼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재배·유통분야 변화와 민·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소통 필요

③ 김현호 소장(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

금산 인삼 약초 가치 Upgrade를 위한 방안 및 R&D 추진방향

○ 국내 산업현황

- 소득향상과 웰빙 트렌드로 생산규모 증가 후 최근 정체상태이며,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임
- 기후변화, 초작지 부족, 경영비 증가 등 생산기반 위축으로 고품질 원료삼 안정생산에 한계가 있음
-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삼소비 감소 및 재고 누적과 수삼소비는 줄고 홍삼제품류 소비는 증가하고 있음

○ 시장전망

-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여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건강기능성 식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예측

○ 인삼 R&D방향(재배, 생산)

- 다수확, 내병성의 생산자 요구를 반영한 품종 육성 노력
- 인삼 정밀농업, 생리·생태 및 양분관리 연구로 생산 최적화 병행

○ 금산 인삼가치 Up Grade 방안제시

- GAP 인증제 확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소비자 신뢰 확보
- 금산군 주도 국내 인삼소재 표준화를 위한 R&D 선행 필요

④ **강상목 조합장(백제금산인삼농협) : 인삼 소비 촉진에 대한 제언**

○ 학교급식 및 군납

- 중·고등학교 대상 학교급식 및 군부대 급식에 인삼을 활용한 음식과 제품을 제공으로 미래 소비자 발굴과 홍보 필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농협 등이 협력사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 절실

○ 홍보 및 마케팅

- 인삼, 홍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도 오프라인 위주의 홍보·마케팅과 온라인 시장 개척 및 판매 활성화에 관심 요망
- 젊은 소비층의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과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선행 필요

☞ 인삼은 언제나 최고라는 자만심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변화를 찾아 ‘감동의 인삼’ 으로 거듭나야 함

⑤ **정승철 조합장(국제금산인삼시장조합) :**

인삼약초시장 유통 안전성과 법률문제 등에 대한 고찰

- 도매시장에서 인삼유통시 안전성 검사를 필한 후 판매해야 함
 - 안전성 없이 유통되는 인삼은 미래가 없음. 안전성 검사를 당장 실시해야 함
- 제조 인삼, 홍삼, 태극삼, 흑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
 - 소분판매, 검사 및 인삼박스 디자인 지원, 계절별 성분 홍보 등
- 「약사법」 및 「인삼산업법」 개정 노력 필요
 - 인삼이 약으로 쓰여질 경우 출하조절이 가능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과잉생산에도 인삼값이 폭락하지 않음
- 수삼(Water)이 아니라 생삼(Fresh)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함

⑥ **황광보 대표이사(우신산업주식회사) :**

인삼산업 활성화 방안 - 수출 · 가공 · 제도개선 등

○ **가공 및 수출**

- 인 · 홍삼의 명칭 사용시 최소한의 함양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요함
- 인삼의 기능성(뇌기능 향진 등 8개 효과)를 홍보 등 해외수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길’ 을 닦아야 함)

○ **R&D 및 마케팅**

- 인삼 고유의 쓴맛을 중화하고 의약품 · 식품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함
- 한류(오징어 게임에 달고나가 아닌 인삼제품이 나왔다면)를 통한 접근성 있는 홍보 필요

○ **제도개선**

- 인삼을 수급조절 대상품목으로 편입해야 함
- 「인삼산업법」 제11조 중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 · 방출을 해야 한다’ 로 개정, 비축 · 구매 연근 지정 철폐
- 「약사법」을 개정하여 「인삼산업법」에 의한 검사를 「약사법」에 의한 검사로 인정
- 농업관측 품목에 인삼을 편입하고, 열처리 원형삼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함

○ **그 밖에 인삼약초산업진흥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③ 자유토론 (질의 · 답변)

① ‘경작신고 관련’ 에 관한 의견 및 답변

질의

《불교공뉴스 환경부 송인승 부장》

- 현재 경작신고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경작신고를 하면 농민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답변

《문정우 군수》

- 경작신고 기피 이유는 자조금을 아끼기 위한 것으로 파악, 자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지 않다는 불신도 있음
- 지원사업도 경작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

② ‘6년근 인삼 재배 확대’ 에 관한 의견 및 답변

질의(1)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연구개발팀 표미경 팀장》

- 6년근 인삼의 경우 기후적 · 가격적 측면에서 불리하고, 재고 부족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1)

《정낙춘 국장》

-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에서 수요가 많은 6년근 재배를 제안한 것임
- 4년근과 6년근의 차이점이 적음을 공영방송 등에 홍보가 필요함

질의(2)

《금산인삼협동조합 손원석 조합장》

- 6년근의 경우 농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 또는 토질의 영향으로 6년근만 고집할 필요가 없고, 재배되 쉽지 않음
- 4~6년근이 성분차이가 없음을 도 차원에서 홍보(예산 반영 요망)

답변(2)

《정낙춘 국장》

- 6년근을 100% 생산 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 6년근 생산 비율을 늘리자는 취지임
- 4년근도 6년근 못지않은 성분이 있음을 언론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③ ‘금산 생산 인삼에 대한 지원’ 에 관한 의견 및 답변

질 의

《금산인삼협동조합 손원석 조합장》

- 판로가 없으면 유통에 의미가 없음
-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유통될 때 한 건의 택배비라도 지원을 건의함

답 변

《문정우 군수》

- 인삼 축제가 취소되면서, 예산전용으로 세일행사 등 행사와 홍보를 강화했음(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임)
- 도에서 금산군에 홍보예산 지원을 건의드림(CF외에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방송을 통한 홍보도 중요함)

④ ‘제도개선 등’ 에 관한 의견

의 건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원》

-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많음.
- 문제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인삼산업이 어려워졌음
- 농산물에 대해 농림식품부에서 재정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음
- 이를 위해 도에서 시작했으니까 군 차원에서 금산 인삼약초 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⑤ ‘인삼 수도 조례 제정’ 에 관한 의견 및 답변

질 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 최대영 행정원》

- 미국의 경우 인삼의 수도가 존재함
- 금산을 ‘인삼의 수도’ 라고 명명하는 조례 제정을 건의함

답 변

《김복만 의원》

- 조례가 필요하면, 도의원들과 협의하여 제정을 검토하겠음

⑥ ‘채굴전 검사의 불합격 농가’ 에 관한 의견 및 답변

질 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 최대영 행정원》

- GAP를 하기 위해서는 채굴전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에 불합격한 인삼에 대한 대책과 보상방안은?

답변(1)

《김영수 원장》

- 불합격이 나오면 채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불합격 인삼의 경우에는 재검사를 시행하여 합격할 때까지 경조조치를 해야 함

답변(2)

《문정우 군수》

- 채굴전 잔류 농약검사 관련해서 인삼경작 예정지를 관리할 때 잔류농약검사를 전제로 지원함(‘농약 잔류시 경작을 하지 말라’는 취지임)
- PLS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용가능한 농약이 지정되어 있음(지정 및 허가된 농약을 사용하면, 반감기가 존재하여 재검사 시에도 불합격하지 않음)

⑦ ‘금산 생산 인삼에 대한 지원’ 에 관한 의견 및 답변

질 의

《LG생활건강 금산중앙지사 대표 송영천》

- 홍보 측면에서 ‘면역력’ 쪽에만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원기회복 및 기력’에 포인트를 주어 마케팅 또는 홍보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음

답 변

《문정우 군수》

- ‘원기회복·기력’은 결국에는 ‘면역력’이라고 생각함
- 홍보는 짧은 시간에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적극 검토하겠음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결론

- 행정기관·관계 전문가·인삼산업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삼엽(蔘業)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
- 인삼 경매제 도입과 경작신고의 의무화
- 6년근 인삼의 재배 확대와 시장 이전 등 신규 플랫폼 구축, 민·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소통의 강화
- 신품종 육성과 금산군 주도의 국내 인삼 소재 표준화 진행
- 젊은 소비층을 공략한 학교급식·군납, 온라인 마케팅 확대
- 인삼 제품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 모색(CF, 방송프로그램 등)
- 수급조절 대상품목·농업관측 품목 편입과 열처리 원형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성 과

-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삼의 안전성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행정의 지원과 인삼산업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 민·관의 화합과 협력의 중요성 인식
- ‘6년근 인삼 경작 확대’에 대한 오해 해소, 4~6년근 인삼의 성분함량 편견 해소에 관한 홍보 강화 필요성 인식

Ⅳ 후속조치

- 의정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의견)이 행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된 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가칭)「인삼약초의 수도 조례」 제정 검토

토론회 사진

단체 사진



의정토론회 내빈 및 참여자



지정토론 참여자

주제발표 및 토론



토론진행(김복만 의원)



주제발표(김영수 원장)



지정토론



자유토론(질의·응답)

언론보도 현황

제목 및 매체

번호	제 목	매 체 명
1	충남도의회,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 토론회” 개최	금산중앙신문
2	충남도의회, 토론회 개최 약초 산업 발전 방안 논의	충청일보
3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일보
4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투데이충남
5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중앙매일
6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대전투데이
7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대전투데이
8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일보
9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불교공뉴스
10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신아일보
11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중앙매일
12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 충남도의회	코리아플러스
13	충남도의회,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 토론회 개최	뉴스티엔티
14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범죄예방신문
15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충남신문
16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아주경제
17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토론	세종방송
18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뉴스밴드
19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현황 진단 및 발전대책 모색	NEWSIS
20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특급뉴스
21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타임뉴스
22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논의	디엠비뉴스
23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데일리한국
24	충남도의회 “금산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연합뉴스
25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蔘業 혁신위' 구성 제안	농업경제신문
26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논의	BreakNews
27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세계타임즈
28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투데이충남
29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뉴스세상
30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온양신문

언론보도 발췌



HOME > 종합뉴스 > 정치행정

충남도의회,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21.11.26 23:27

김복만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인삼약초산업 현황 진단 및 발전대책 논의



충남도의회,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26일, 충남도의회 김복만 의원 요청으로 오후 2시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생산·가공·소비·유통·제도적 측면에서 '인삼약초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경제신문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蔘業혁신위' 구성 제안

김복만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인삼약초산업 현황 진단 및 발전대책 논의

기사입력 2021-11-26 15:47:54



26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 /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농업경제신문 강재규 기자] 충남도의회가 후퇴해가는 국내 인삼약초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무거운 발걸음을 때 후속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26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생산·가공·소비·유통·제도적 측면에서 '인삼약초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김영수 원장이 '금산 약초시장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전투데이

2021년 11월 29일
02면 (정치)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김복만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인삼약초산업 현황 진단 및 발전대책 논의

충남도의회는 26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생산·가공·소비·유통·제도적 측면에서 '인삼약초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김영수 원장이 '금산약초시장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금산군 문정우 군수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원장은 '금산인삼산업 발전 대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안'을 제시하면서 삼엽(蔘葉) 혁신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삼엽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문 군수는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며 인삼 거래의 경매제 도입과 수급균형을 위한 경작신고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어 충남도 정낙춘 농림축산국장은 "인삼산업의 재배·유통 분야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관

성의 강조했다.

충남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김현호 소장은 '금산 인삼약초 가치의 향상방안과 연구개발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백제금산인삼농협 강상복 조합장은 인삼의 학교급식 및 군납, 젊은 소비층에 맞는 마케팅 등 인삼 소비 촉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금산국제인삼시장 정승철 조합

장은 "제조된 인삼류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수산의 명칭을 생삼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신산업주식회사 황광보 대표이사는 소비자 입맛에 친화적인 제품개발, 한류를 통한 외국 홍보 등 인삼제품의 수출·가공·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금산 출신 도의원으로서 인삼약초산업의 절체절명의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며 "이번 의정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최적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20.2*13.6)cm

忠南日報

2021년 11월 29일
10면 (지역)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6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생산·가공·소비·유통·제도적 측면에서 '인삼약초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가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6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생산·가공·소비·유통·제도적 측면에서 '인삼약초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명균 기자
(17.7*10.7)cm